

## 2025 년 5 월 4 주차 각 지역 소식



### 🌐 홍콩

- ✔ 홍콩 코로나 19 확진자 1 년중 최고치, 지난 4 주간 중증 81 명·사망 30 명
- ✔ 존리 행정장관 중동 순방성과, 5 일간 카타르·쿠웨이트와 MOU 59 건 체결
- ✔ 항셍은행 대규모 감원시작, 은행업계 AI 로 일자리 감소 본격

### 🌐 심천

- ✔ 中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5 개국 무비자 입국 허용
- 해상
- ✔ 리튬순배터리/자석/희토류수출 세관검사강화
- ✔ 최근 HS CODE 84/85/90 으로 시작되는 제품 중점검사대상으로 지명
- ✔ 세금환급없는 제품 수출전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
- ✔ 90 일간의 '관세휴전'으로 항공운임 대폭인상, 스페이스 상당히 타이트

### 🌐 충칭

- ✔ 中, 외제차 말고 국산차 중국차점유율 70%역대최고

### 🌐 샤먼

- ✔ 중국 직장인 93% AI 도구 활용... 세계평균치 크게 웃돌아

## 🌐상해

- ✔올해 1~4 월,中수출입 총액 14.14 조 위안,전년 동기比 2.4% 증가
- ✔中인민은행 발표,경기부양위한 기준율 0.5% 인하,금리도 0.1% 인하 시사
- ✔연운강항,'연해 샤오따이(沿海捎帶)'업무방식 통한 환적화물 운송 정식개시로 국제환적 화물유치 확대 목적 포부
- ✔5 월 2 일 미국 '소액면세'혜택 정식 종료..미중 화물기운항 '반토막'
- ✔中교육부, 'AI 생성 콘텐츠과제 제출금지'..초중고 가이드라인 발표

## 🌐청도

- ✔연태 냉동딸기 전통적 수출제품으로,주로 잼,아이스크림 제품 가공품에 사용,기존 일본,한국,러시아 로 수출, 최근 몇년간 베트남,태국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확대, 올해 3,600 톤이상수출

## 🌐태국

- ✔중국 창안자동차,태국전기차 생산거점 본격화...R&D 센터·지역본부 설립추진
-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 클라우드,태국에 '손바닥 결제' 기술도입추진
- ✔미·중 관세합의에 달러강세...바트화환율 달러당 33.80 바트까지 하락전망
- ✔한국내 태국인 불법노동자 13 만명 넘어,피팻 노동부장관 한국고용주들만나 합법취업기회 모색
- ✔최근 태국에서 코로나 감염자수 증가
-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도시 순위 2025'에서 치앙마이 1 위,방콕 7 위
- ✔태국발 -인천항,선복감소로 스케줄조정 문제점 지속발생

## 🌐동경

- ✔일본내각부가 16 일발표한 올해 1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7% 줄어들어 4 반기만에 마이너스 성장
- ✔국교정상화 60 주년 맞아 하네다공항,후쿠오카공항에 김포,김해공항에서 도착한 승객,전용심사레인도입, 한달운영후 향후 본격도입 검토
-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출산비 무상화 추진

## 🌐하노이

- ✔中쉬인,美관세압박 피해 베트남에 대규모창고 확보
- ✔하이퐁 LG 전자,냉장고 생산라인가동률 하향.대미관세정책 영향
- ✔美,베트남과의 무역적자 심각한수준...지속불가능 압박
- ✔한국가스기술공사,베트남천연가스 주배관 엔지니어링사업 첫진출
- ✔제주수산물 베트남등 시장공략 수출길 넓힐예정

#### 🌐호치민

- ✔베트남, '밀수·위조품' 대대적 집중단속 실시...특별 TF 출범
- ✔한국가스기술공사,베트남 천연가스 주배관 엔지니어링사업 진출
- ✔중국토목건설공사, 베트남 고속철도사업 참여 타진
- ✔농업국' 베트남, 내년까지 수입쌀 연 400 만톤 필요...세계 2 위 규모

#### 🌐대만

- ✔중화항공 & 에바항공 1 분기 순이익 사상 최고치기록,화물운송 매출 각각 27%, 25% 성장
- ✔4 월수출액 전년동월대비 근 30% 급증,18 개월 연속증가세

#### 🌐자카르타

- ✔중국산 수입품 인니시장 잠식우려,미국 관세전쟁 재시작 이후 중국산수입품 물량폭증,불법수입에 추가되어 덤핑쓰레기장 전략우려
-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니내 2 번째 공장설립계획,아디다스핵심공급 업체(ODM 생산),중부자바지역,1 만 2 천개 일자리창출기대(26 년)
- ✔자카르타,수라바야발 인천항선복 부족예상-고려해운

#### 🌐싱가포르

- ✔4 월대미 수출컨물동량 8 만 TEU
- ✔1 분기합산 31 만 9410TEU,아시아 5 위
- ✔인도-파키스탄 사태,선사들 서아시아 항로 개편
- ✔기업들은 싱가포르경유 3 자무역으로 우회
- ✔롯데마트 진출.PB 상품위주로 판매

#### 🌐말레이시아

- ✔클랑밸리(포트클랑 항만지 포함)교통체증으로 연료비 손실초래.정부개선노력에도 혼잡완화 과제
- ✔시노 물류(Sino Logistics)그룹,동남아전역포함 아세안사업확장 계획 발표
- ✔정부 말레이시아 전체등록차량수 지속증가대비 대중교통이용저조 우려제기.교통인프라 과중부담 지적

## ▶주간 사항 요약

**Container**    미.중 관세 인하에 합의, 북미항로 운임 급등세  
**Bulker**       철광석 투자심리 개선으로 케이프사이즈 상승

## ▶Container

	5/16	5/9	증감
SCFI	<b>1479.39</b>	1345.17	▲ 134.22
美서안	<b>3,091</b>	2,347	▲ 744
美동안	<b>4,069</b>	3,335	▲ 734
유럽	<b>1,154</b>	1,161	▼ 7
지중해	<b>2,082</b>	2,089	▼ 7
동남아	<b>434</b>	430	▲ 4
중동	<b>1,191</b>	1,145	▲ 46
호주	<b>737</b>	771	▼ 34
남미	<b>1,725</b>	1,472	▲ 253
日서안	<b>315</b>	316	▼ 1
日동안	<b>320</b>	320	-
한국	<b>144</b>	148	▼ 4
동서Africa	<b>3,714</b>	3,740	▼ 26
남Africa	<b>1,970</b>	1,975	▼ 5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종합      SCFI 2 주 연속 상승, 미중 90 일간 관세 114% 인하에 전격 합의

1. 합의 후 中→美 관세는 30%. 中재고소진 의지, 美재고보충 수요 그리고 향후 불확실성이 맞물려 미국항 부킹 증가세. 4 월부터 공급 축소 극대화된 점 고려시 단기 운임 강세 예상
2. 90 일 후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입사의 사전선적 정도, 선사의 북미항로 복원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美소비의 회복 여부가 향후 물동량 및 운임에 큰 변수로 작용
3. 일각에서 팬데믹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으나, 당시 美소비 폭발의 원인이 유동성 확대에 의한 구매력 상승인 반면, 현재는 소비 증가가 아닌 美 현지 재고 보충 수요가 주

## **미주향로      美 서안 4 주 연속 상승, 인하 합의 후 선적량 빠르게 회복하여 급등세**

1. 상호관세 후 대규모 공급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단기 선복 부족에 따른 운임 인상 요인증가.  
4 월대비 50~200%부킹이증가했다는주장이있으며,선사들은 5/15 부\$1,000GRI 를발표, 6 월추가 GRI 와 함께 서부향 40"는\$6,000 까지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
2. 강세 지속 여부는 미국의 구매력 회복 여부 및 공급량 복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관세는 30%인상되었으며 단기 운임 인상분 고려 시,업체들이 증가된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킬지는 미지수,필요량 선적 후 관망세 전환 가능성도 존재
3. 고려해운은 북미향로 분위기 전환과 동시에 롱비치향 신규 서비스 개시 발표, 운임상승 요인으로 인해 중소선사들의 미주 신규 진출 및 서비스 재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럽향로      5 주 연속 하락, 수요 둔화 속에 공급 증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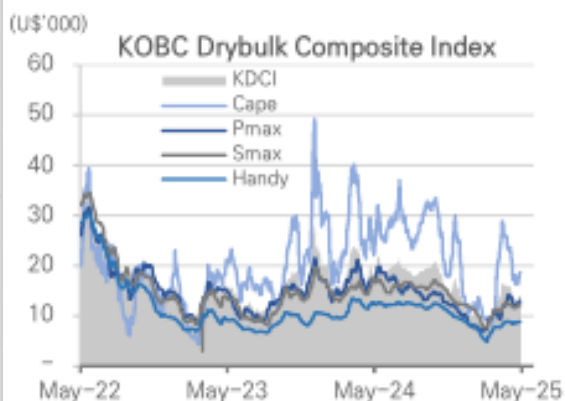
1.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운임 약세 계속 .관세 합의를 계기로 유럽향로에 추가된 선복의 북미향로 재배치가 이뤄지며 추후 유럽향로 공급량 축소 예상,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유럽 주요 항만 사정 고려시 주간 단위 실질 공급량은 더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
2. 수에즈 운하는 대형 컨테이너선 통항료 15% 할인을 발표하며 선사들의 빠른 복귀를 추진 중. 하지만 현재의 약세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운하 조기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연근해/기타      동남아 2 주 연속 하락, 공급 증가 계속**

1. UBS 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3.7~4%로상향(기존 3.4%)했으며 모건스탠리도 2 분기 기존 성장 전망(4.5%)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번 합의는 아주 역내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

## ▶ Bulker

		5/16	5/9	증감
KDCI		13,100	12,712	▲ 388
Cape	평균	17,881	16,356	▲ 1,525
	F/H	38,125	32,250	▲ 5,875
	T/A	14,075	12,750	▲ 1,325
	Pac RV	14,275	13,688	▲ 587
P'max	평균	11,519	11,779	▼ 260
	F/H	16,369	16,792	▼ 423
	T/A	10,432	10,794	▼ 362
	Pac RV	9,947	9,961	▼ 14
S'max	평균	11,358	11,348	▲ 10
	F/H	14,467	14,058	▲ 409
	T/A	13,225	13,198	▲ 27
	Pac RV	10,750	10,905	▼ 155



### Cape 관세협상,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투자심리 상승

1. 중국의 철강 수요 비수기(5~6 월)에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상호관세 유예 조치 및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철강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철광석 수요가 증가
2. 5/15 일중인민은행은 7 일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기준율을 50bp 인하하여 1 조위안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 기준율 면제를 시행. 그러나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해 이러한 부양책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
3. 제강 마진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고품위 철광석(65%이상)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한 저품위 철광석 수요는 증가. 최근의 가격 반등은 실물 수요 회복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른 심리적 반응으로 해석
4. 중국 제강사들이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온 호주산 필바라 철광석의 철(Fe)함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 확산. 철 함량이 낮아질 경우 부대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 부담 역시 커지면서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有
5. 금주에도 긍정적 심리에 의한 투자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나 계절적 비수기로 상승폭 제한

## Panamax 미국 곡물 수출 비수기로 실적 저조

- 1 . USG 지역의 곡물 수출 감소와 아시아 석탄 시장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운임은 하락세
- 2 . 미국 주간 곡물 수출은 옥수수 1,411,900 톤(전주 대비△22%), 대두 429,900 톤(전주 대비 ▲66%), 소맥 371,400 톤(전주 대비△25%)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옥수수는 판매는 양호하나 항만 선적 지연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고 소맥은 2025/26 작황 연도 선판매 증가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 3.
- 3 . 미국과 중국은 90 일간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산 대두·옥수수·소맥에는 각각 23%, 28%, 26%의 관세가 여전히 유지. 현재 미국 대두 시장은 비수기로, 2024/25 물량 구매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다만,오는 9 월이후 미국산 대두의 주요 수출 시즌이 시작되며, 이 시점까지 관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有 4.
- 4 . 인디아는 국내 석탄 생산 증가와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석탄 수요가 급감. 항만 및 발전소의 석탄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항만은 적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5.
- 5 . 아시아 석탄 시장 침체로 미국 곡물 수출 실적이 금주 시황을 좌우할 전망

## Supramax 대서양은 상승, 태평양은 하락

- 1 . 중국향 석탄 화물이 견조한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선박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합세
- 2 . 대서양은 중국향 석탄 화물이 견조하게 유입되며 운임을 지지하여 상승세
- 3 . 태평양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시장 분위기이나 화물 유입이 제한적이고 선박은 과잉상태가 지속되면 서 하락세
- 4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및 동칼리만탄 지역의 폭우로 인해 일시적인 물류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제련소는 러시아, 콜롬비아산 석탄 수입을 시도
- 5 . 시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보합세 전망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mailto: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http://www.mcexpress.co.kr)